

- 세계의 검은 굴뚝이자 진공청소기로 불리우는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산업 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키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 제품을 홍수처럼 판매함으로써 한국 상품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추락시킨 가운데 이와 같은 이동통신장비 생산플랜트를 브라질에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중남미에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우리 업계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함.
- 특히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주종 수출품목 중의 하나가 이동통신 제품으로서 현재까지는 Motorola, Nokia, Ericsson 등 선진국 제품과 경쟁했지만 얼마 안 가서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한 중국 제품과도 부딪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문의처 : 파나마무역관 박강욱 kotral@psi.net.pa)

중동,아프리카 지역

■ 2010년 남아공 FIFA World Cup 경제적 파급효과

- 2010년 축구 월드컵 개최지로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남아공이 확정됨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관광 및 입장권 수익 외에 경제 현안인 실업률 축소를 통한 빈곤 완화, 흑인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정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 2010 남아공 FIFA World Cup의 경제적 효과 요약>

- ◆ 관광객,입장권 직접 수입 : 127억란드 → 정부수입,소매경기 활성화
- ◆ 남아공 GDP 기여분 : 213억란드 → 최대 4.4%의 경제성장 효과
- ◆ 고용창출 효과 : 159,000명 → 월드컵 이후 절반 정규직 전환 가능
- ◆ 정부 세금 수익 : 72억란드 → 정부 중점 사업에 활용
- ◆ 기타 간접 효과
 - 국가 이미지 제고 → 아프리카의 낙후된 이미지 불식
 -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 FDI비중 GDP의 2% 목표
 - 빈곤 극복의 출발점으로 국민 합의 도출
 - 정부사업에 흑인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흑인 기업육성 가속 (경제분야의 흑백 불균형 시정을 위한 기업구조 개편 가속화)

(자료원 : South African Soccer World Cup 2010 Bid Committee Briefing)

-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신축 및 인프라 확충에 약 23억란드 지출이 예상되며 기존계획 사업 착공 일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국기업 입장에서 하청을 통한 직접 프로젝트 진출이나 남아공에서 제조되지 않는 틈새 건설 기자재 수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남아공 엔지니어링 업체의 높은 기술력 및 유럽업체와의 콘소시엄, 기자재 분야의 경우 유럽산이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남아공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 현황 >

사업명	주요 내용
경기장 신축 및 보수	- 총 규모 : 23억란드 . 경기장 신축.보수 : 18억란드 . 경기장 주변 인프라 확충 : 5억란드 - 사업현황 : 13개 경기장 중 9개 보수, 4개 신축 - 수혜산업 분야 . 엔지니어링, 철강, 시멘트 등 건축기자재 . 경기장 조명 시설 . 대형 경기장 스크린 . 경기장 출입통제 관련 보안 장비 . 입장권 판매 System 등 IT분야 . 대형 발전기 등 - 일정 : 미확정
도심고속철도 사업 (Gautrain)	- 총규모 : 70억란드 - 사업현황 : 공항-요하네스버그-프레토리아를 연결하는 총 80km 도심 고속철도 및 12개 역사건설 - 수혜산업분야 . 철강, 시멘트 등 건설용 기자재 . 보안. 안전장비 : 1,200대 CCTV카메라 소요 . 철도관련 각종 장비 등 - 일정 : 04.11월 최종 사업자 선정, 2005.1월부터 착공 예정, 2009년 완공 예정 - 관련정보 : www.gautrain.co.za . 주 사업 신청자 현황 (3개 콘소시엄 신청) . 하청 업체 등록 현황 등 세부자료 입수 가능
더반 공항 건설 (King Shaka Int'l Airport)	- 총규모 : 20억 랜드 - 사업현황 : 남아공 물류중심지인 더반(Durban)에 항공 물류 수송 중심의 신공항 추가 건설 - 일정 : 2009까지 완공 예정, 사업자 선정 등 구체 일정 미확정,

(자료원 : Engineering News, 하우텡 지방정부)

○ 2010년 남아공 FIFA World Cup은 한국기업의 인프라확충 사업 진출 기회 및 남아공 수출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화폐 란드화 가치 안정으로 로컬산과의 경쟁에서 한국산 가격 경쟁력 확보 (과거 란드화 가치는 대남아공 수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바 있음.)
- 흑인 중산층 증가로 한국 대남아공 주력수출 품목인 승용차, 무선전화기, 가전제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
- 인프라 확충으로 건설 장비, 기자재, 산업용 기기 수요 증가

* 주 : 환율 US\$ 1= 약 6.5란드 (현재)

(문의처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세영 kotrajnb@icon.co.za)